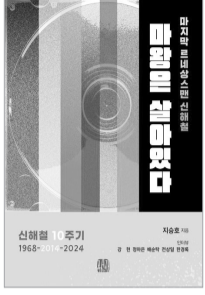


# 신해철이 함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 마왕은 살아있다

지승호 지음



“마왕” 신해철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여러가지다. 우선 음악. 평론가 강현이 “단 한곡, 이 노래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름은 명예의전당에 현역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말했던 ‘일상으로의 초대’를 비롯해 ‘민물장어의 꿈’, ‘재즈 카페’, ‘라젠카 세이브 어스’ 등 그가 록그룹 ‘넥스트’를 이끌고, 또 솔로가수 시절 불렀던 노래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청춘을 함께했던 ‘고스트 스테이션’과 ‘FM 음악도시’의 DJ로 그를 기억하고,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던 신해철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쩌면 한 가지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 곁에 신해철이 함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신해철 10주기를 맞아 앤솔로지 인터뷰북 ‘마왕은 살아있다-마지막 르네상스맨 신해철’이 나왔다. 저자는 신해철의 생생한 육성을 담근 대담집 ‘신해철의 패변독설’ (2008)과 5주기였던 지난 2019년 ‘아신해철’을 펴낸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다.

1부 ‘신해철과의 10주기 가상 인터뷰’로 시작한 책은 2부 ‘마왕의 최강 친구들’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와 교류했던,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다섯명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첫번째 주자는 가족과 멤버들 빼고 인간 신해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 평전 ‘신해철 (돌베개)’의 저자 강현이다. 그는 신해철에 대해 “한 시절을 대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시대를 대변했고, 그 시대의 많은 어



올해 10주기를 맞은 신해철.

떤 표정들을 자신의 삶과 음악에 투영시켰고, 새롭게 창조해냈고, 한국 대중음악사에 있어 여전히 최전선에서 있는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였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플라 패턴 병 두 병을 앞에 두고 술한 이야기를 나눴다. 몽상과 망상도 있었지만, 그의 노래가 “철학적이고, 사회적 시선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아와 주제, 그런 개념에 대한 일종의 성찰 드라마 같은 요소들이 많았기에” 아버의 곡으로 만든 ‘맘마미아’ 같은 뮤직

박스 뮤직컬을 꿈꾸기도 했다.

자신의 책 ‘청춘을 달리다’에서 신해철을 ‘세상과 불화한 인텔리겐차 양아치’라 칭했던 MBC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음악평론가 배순탁은 신해철에 대해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식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던 휴머니스트이자, 인본주의였다. 이념적인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바로 나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가 공허한 구호나 수사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밴드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야기는 벌써 데뷔 30년을 앞두고 있는 ‘크라잉 넛’의 베이스트 한경록과의 인터뷰에서 만날 수 있다. “부딪쳐서 세상과 부딪혀 보고, 스파크를 팍팍 내는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으로 마왕을 기억하는 한경록이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얽히면 새로우면서도 독특한 뭔가가 나왔을 것 같다. 새로운 과잉 같은 것이 열렸을 것 같다. 이상한 모양과 이상한 색과 이상한 향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읽는 이들도 짙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모던 아트’로 제18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고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펴낸 소설가 정아은은 “자기 혐오를 하기 쉬운 청소년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자,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사고하는 남자 어른의 롤모델”을 보는 것 같아 신해철이 직접 쓴 ‘마왕 신해철’을 아들에게 읽힌 사연을 들려준다.

3부 ‘마왕을 만나는 16가지 키워드’는 ‘아, 신해철’을 재편집한 내용이다. 그룹 ‘무한개도’ 시절 대학가요제 대상곡 ‘그대에게’에 얽힌 이야기,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앙드레 교주, 연대하고 배려할 줄 알았던 품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와 그의 육성으로 만날 수 있다. <목선재·1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바빌론을 점령한 뒤 강국 이집트와도 우열을 다했던 고대 제국 히타이트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히타이트는 역사에서 종적을 감췄다가 3000년 만에 고대사의 전면에 부상했다. 기원전 14세기 이들은 아시리아 등과 함께 고대 오리엔트의 3대 제국으로 세력을 널리 펼쳤다. 오리엔트 세계에서 글로벌 체제로 재편되던 시기, 군사력은 물론 문화예술적 소프트 파워를 두루 갖춘 제국의 힘을 조명한다. <더숲·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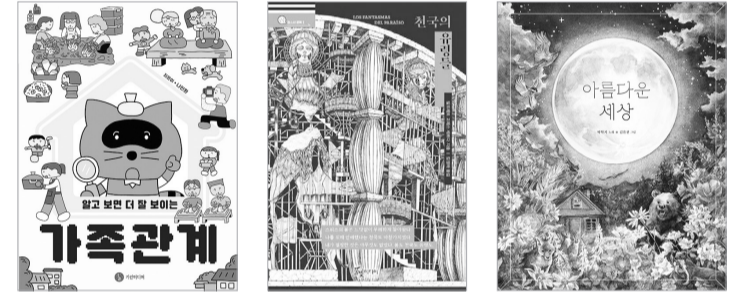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특정 사안에 대해 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만, 그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란 훨씬 어렵다. ‘진밀한 관계와 사랑’, ‘개인의 자유’, ‘사회의 정의’라는 세 가지 윤리철학의 핵심 원리를 유념하면 세상의 질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윤리 철학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명강의 내용을 고찰하며 삶의 지침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회에 존재하는 오해와 편견을 견어내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북하우스·1만8000원>

▲토끼들의 섬=새가 가득 찬 섬에 토끼를 풀어놓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표제작 ‘토끼들의 섬’은 토끼들이 새를 공격하는 모습부터 그들을 해지운 뒤 몸을 단장하는 잔혹성을 다룬다. 귀에서 발이 뻗어 나오는 여성의 수기 ‘스트리크린’, 카프카의 변신처럼 자신이 신원여행지에서 벌레로 변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잇몸’을 비롯해

‘지옥의 건축학을 위한 기록’ 등 환상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세계의 단면을 그린 이야기가 실려 있다. <비채·1만6800원>

▲불온한 공익=장애인들이 자신의 휠체어 이동권 등을 주장하는 것은 공익인지 사익인지 쉽게 답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이 공익적인지 정의할 수 있는가. 전자와 달리 후술한 두 ‘권리’는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으로 간주되곤 한다. 지배 세력이 볼 때 사익 추구가 경제·정치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아서라는 논지를 펴낸다. <한겨레출판·2만원>

## 어린이·청소년 책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가족관계=사촌 오빠의 동생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외할아버지의 환갑 잔치는 몇 살 때 열리는 것이며, 증조할머니의 미수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심코 지나치던 가족 관계와 호칭, 친수를 한눈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친척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삽화를 통해 도식으로 확인하고 직접 가계도를 그려본다. <기린미디어·9500원>

▲천국의 유령들=시웅 등 아름다운 유럽 사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이 자기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청소년 성장담. 주인공 공 파블로는 스위스 국제제에서 공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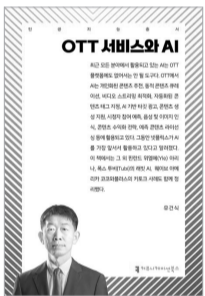
베티나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의 행복한 미래는 언론사에서 아버지의 부패 혐의를 대서특필하기 전까지 이어진다. 소용돌이치는 운명 속에서 젊은 파블로는 ‘선택’을 마주한다. <풀빛미디어·1만4000원>

▲아름다운 세상=1988년 데뷔해 ‘골든디스크 신인 남자 가수상’을 받은 가수 박학기의 노래가 그림을 입었다. 동물 친구들이 함께 등장해 낭만적인 가사를 읊미하고,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노래한다. 교과서에도 실렸던 곡 ‘아름다운 세상’, 희망을 꿈꾸는 가사가 인상적인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 등을 함께 부른다. <스픈북·1만7000원>

# 넷플릭스는 어떻게 글로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 OTT서비스와 AI

유건식 지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어느 장소에서나 OTT (Over-the-Top-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감상하는 시대다. 정보기술(IT) 변화와 맞춰 새롭게 등장한 OTT 플랫폼이 TV와 같은 기존 ‘레거시(Legacy)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국내 유료 OTT 이용자 수는 2930만명(2023년말 기준),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글로벌 가입자 수는 2억7760만 명(2024년 6월말 기준)에 이른다. 이용자는 ‘콘텐츠의 바다’에서 무엇을 볼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관심있는 몇 개의 콘텐츠를 클릭하게 되면 얼마 후 구독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추천 콘텐츠가 화면에 제시된다.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추천 알고리즘 덕분이다.

‘인공지능 총서’의 하나로 출간된 신간 ‘OTT 서비스

와 AI’는 OTT 플랫폼에 적용된 AI의 실례와 파급효과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오랫동안 OTT를 연구해온 저자 유건식(인문학 박사) 전 KBS 아메리카 대표·공영미디어 연구소장은 서문에서 “AI가 OTT에 도입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개인화, 운영의 효율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례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힌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OTT 영역에서 더욱 혁신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디어 소비 및 이용자 상호 작용의 향후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AI는 전세계 관객의 시청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보다 지능적이고 역동적이며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저자는 ‘OTT 모델과 AI’, ‘OTT 서비스의 자막과 더빙’ 등 10개 장(場)으로 나눠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 AI가 적용돼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넷플릭스가 ‘태거’(Tagger)라고 부르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콘텐츠를 7만~8만개의 핵심 키워드(태그)로 정리하고,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구독자에게 정교하게 콘

텐츠를 추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등 AI 기술을 자막과 더빙에 이용하면 ‘언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며 “AI와 OTT의 시너지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아직은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말한다.

핀란드 공영방송(아리나)과 미국 포크그룹(래빗 AI), 웨이브 아메리카(키토크) 등 개별 OTT에서 AI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사례들도 눈길을 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0장 ‘OTT의 AI 활용 전망’을 통해 앞으로 AI가 OTT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콘텐츠의 정교화, 실시간 자막 및 더빙성능 향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증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더욱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인공지능 총서’를 기획해 ‘인공지능과 윤리’(김효은), ‘AI 에이전트와 사회변화’(이정진),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정태창), ‘AI 안과 밖에서 젠더’(이정현) 등 관련 저서를 펴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1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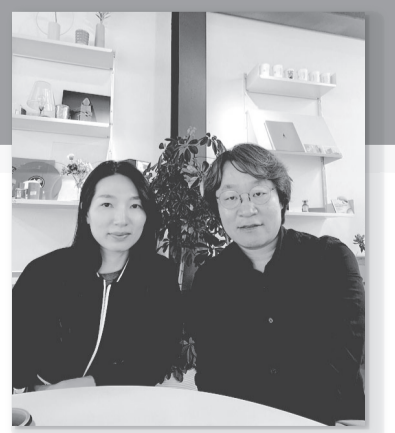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